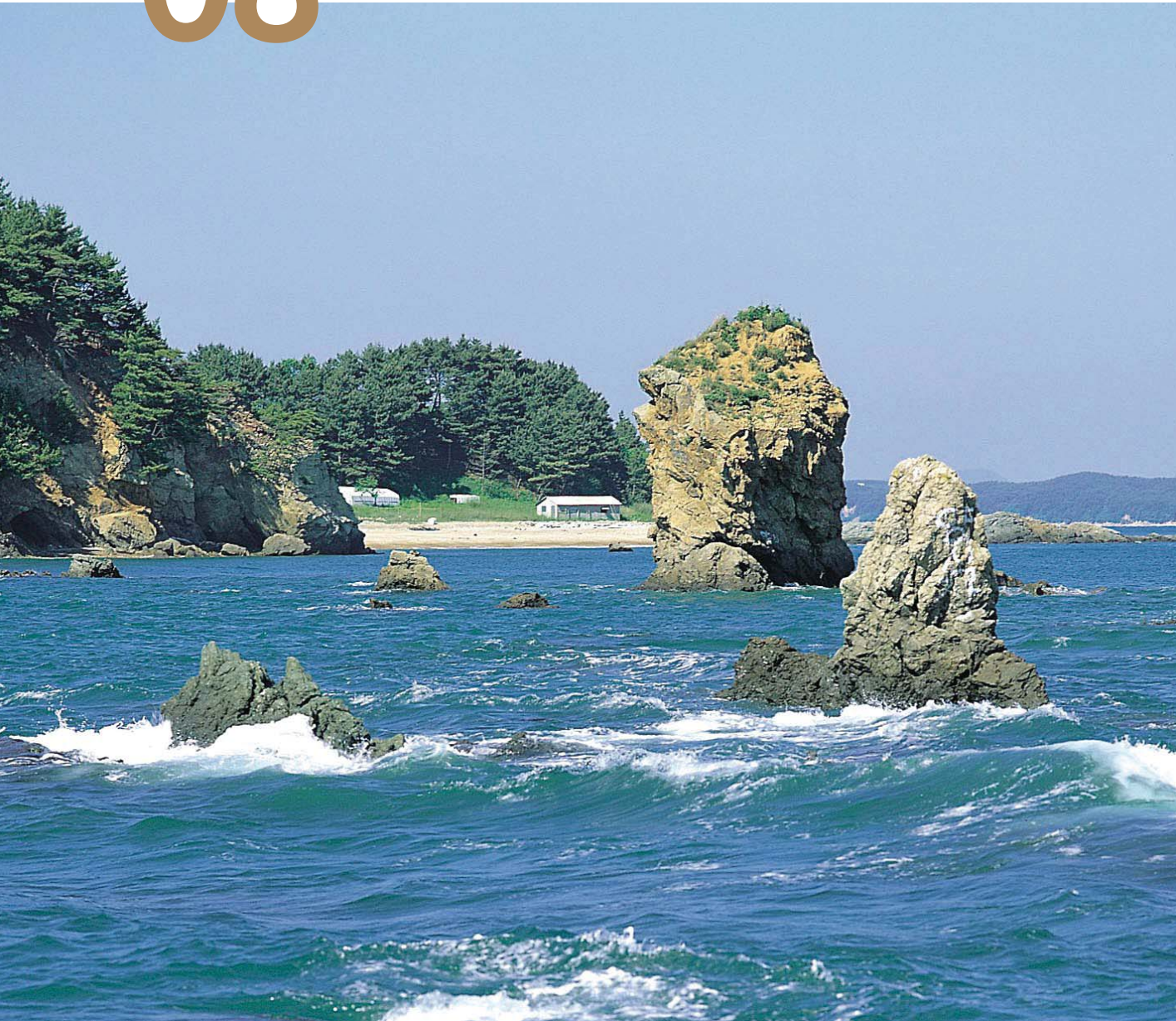


만남

08

2022

통권 58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2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

2022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6월 27일(월)부터 7월 2일(토)까지 매일 아침 6시(토요일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앞으로 새로 맞는 하반기를 소중한 생명의 날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었다. 김운성 위임 목사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시온이 되고, 성전에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다. 특새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거룩한 새벽을 열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속사람을 새롭게 김운성

특별기고 04 환경직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 이효상

다음세대 08 코로나19 이후 청년부가 달립니다! 강병호·조설아
방수진·최운영
12 기도원에서 만나요 하예훈

기획연재 14 존 웨슬리의 고향, 영국 애플스 원성원

영락의 울타리 18 만남의 축복 박성민
20 내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강승훈
23 성전에 올라가 청소합시다 최익준
26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허요환
30 창립50년, 갈렙처럼 꿈을 꾸시다 강순애
32 만성질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 박도준

문화광장 35 찬양의 요람, 교회음악아카데미 김석곤·박승근
38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백정진
41 충남 고대도-선교사 칼 귀츨라프의 발자취를 따라
44 2022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48 예수를 만나야만 알수 있는 진리 홍지연
49 에덴 김근정

교회소식 50 2022년 구역장 대회 외
60 8월 목회력 /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충남 보령군 태안국립공원 내 고대도 앞바다.
1832년 영국상선 애머스트호가 이곳을 찾았을 때 귀츨라프 선교사가 통역사로 함께 상륙했다. 조선 땅에 오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다.

사진제공 : 충남 보령시

속사람을 새롭게

김운성 위임목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7)

가끔 목사님들과 설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 CTS 주관으로 열린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고, 7월에는 부산장신대학교가 주관하는 설교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나, 참여하신 모든 이가 늘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쉽지는 않았습다. 이미 각자의 설교 스타일과 설교에 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두고 말할 때 어떤 이는 말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어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심한 사투리가 더 인상적인 분이 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하는 이가 있습니다. 높은 톤으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저음으로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책을 낭독하듯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차 한 잔 나누며 친구와 말하듯이 하는 이가 있습니다. 긴장

된 태도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유로운 이가 있습니다. 한번 체질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중이 듣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다가 꺼내서 사용하는지, 삶은 어떻게 붙이는지, 참고하는 성경 주석은 무엇인지, 예화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어떻게 설교 원고에 옮기는지, 글의 전개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기승전결의 방식이 좋은지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원고를 보는 게 좋은지, 보지 않는 게 좋은지 등을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상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학 교수님들께서 늘 강조하는 결론은 <설교자가 설교>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원고나 유창한 말주변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라는 말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인품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속사람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 그의 자녀 중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 곧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이란 캐릭터(character)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철판에 못을 대고 망치로 내려쳐서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철판에 새겨진 글이나 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인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의 재주와 능력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의 인품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인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의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성숙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적 동안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이 갑자기 늙어버린 모습을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

다. 이렇게 보면 설교자가 개발해야 할 것도 설교의 외적 측면이 아니라, 설교자의 속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인품이란 그리움을 잔뜩 머금은 고향과 같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에는 자신을 낳고 겨우 스물한 살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가 계시는 / 엄마가 /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 아니 아니 아니 /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 단 5분 /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 원이 없겠다 /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 젖가슴을 만지고 / 그리고 한 번 만이라도 / 엄마! /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 숨겨놓은 세상사 중 /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 영영 올겠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여성들이 만들어 온 <엄마>라는 존재의 인품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엄마들! 엄마라는 단어는 무한한 그리움과 용기의 원천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그리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때 누구나 느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인격적 향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구한말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신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모르는 집에서도 재워주고, 심지어 노자까지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사랑과 따스함을 느끼게 하듯, 성도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힘을 가졌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라는 말이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의 힘, 신뢰의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속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일제 통치 종결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에게 찾아왔다. 그 감격을 만끽했던 짧은 시간 후, 우리 민족은 ‘건국’이라는 보다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양한 세력과 분파들은 자신들이 처한 입지와 일제에 맞서 투쟁

했던 전력에 기반한 다양한 방책들을 제기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은, 향후 민족의 행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기였다. 38도선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국의 군정 체제였는데 미군정은 일정 기간의 통치를 마치면 한국인에 의한 자치 독립 정부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효상 원장
다산문화진흥원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기독교적 건국론’의 기초

한경직 목사는 1945년 월남하여 서울에 영락교회를 설립하고 미군정 시절을 비롯하여 이후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직간접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 목사는 해방



한경직 목사의 「건국과 기독교」

후 3년간 성경에 입각한 세계관을 토대로 ‘기독교적 건국론’을 주장했던 내용을 저서 「건국과 기독교」에 담아 1949년 서울 보린원에서 출간한다. 한 목사는 근·현대사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머릿돌은 반드시 기독교 정신 위에 건설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개인의 인격존중사상, 개인의 자유사상, 만인평등사상을 꼽았다. 망국의 절망적 비애 중에 위안을 얻고 사회적 부활의 희망을 안게 하는 유일한 현실적 원천은 바로 기독교라고 역설했다.

한 목사는 “악은 먼저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만약 인간의 본성 안에 악이 없으면 무정부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인간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상수훈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정부는 필요치 않겠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성경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즉 죄가 있으므로 관현을 임명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간은 본성상 악한 존재이기에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는 인간관계는 서로의 욕망이 상충하는 불협화음을 연출하기 일쑤이며,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상위의 권위 체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 발전한 결과가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하는 권력’으로서의 정부 주권의 소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 목사는 당대 앞선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의 경우를 들어, 건국의 모태가 되는 헌법과 독립선언서에서 분명히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함께 거론하며 주권의 근원적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참으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즉 그 권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 됨을(로마서 13:6) 기억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권세의 출처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1984년 여의도집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

|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라는 말씀과 같이 공의를 정치의 원리로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목사의 이러한 사상은 정치가 만인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칼, 곧 권세를 주신 것은 악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형벌의 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칼을 이러한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며 주기철 목사와 같은 이를 옥사케 하면 이는 법대로 쓰는 공의가 아니다. 의인이 피를 흘리고 옥중에서 죽게 하는 이러한 정치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목사가 ‘법대로 쓰는 공의가 아닌’ 실제 사례로 제시했던 주기철 목사 사건은 일제의 강압 통치 사례 중 하나인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과 옥사 사건이다.

한 목사가 제시한 바람직한 국가와 종교의 상관관계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모델이다.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하는 미국과 네덜란드 같은 칼뱅주의 제국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신 바와 같이 이 완전 분리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도 적합하며, 따라서 교회는 영적 범위 안에서 완전 자유롭고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두 통치 영역이 한쪽은 인간의 영적 생활의 올바른 지도와 그를 위한 헌신에, 또 다른 쪽은 인간의 세속적 삶의 제 영역을 위한 강제와 지도, 그리고 보호에 각각 헌신하면서 상호 분리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관리하는 일이 바로 칼뱅주의적 교회와 국가의 이론임을 원용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

한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의 핵심은 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그 근원으로서 성경과 기독교 사상이다.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나라의 틀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을 위한 신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가장 경계하는 건국 시나리오 중 기피 대상 1호는 유물론적 독재국가 출현이었다.

한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맞서는 성경적 인간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자유가 중심되는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가 언제나 보장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첫째로, 민주주의 근본 사상의 철저한 이해와 신념, 둘째로 질서와 법의 존중 사상, 셋째로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는 국민의 도덕적 품격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적시한다.

‘기독교적 건국론’의 현실적 반영

“기독교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애국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의 역할이 어떠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부흥 운

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산 선생, 남강 선생을 비롯하여 지금 생존하여 지도하시는 이승만 박사, 김구 주석, 김규식 박사, 그 외에 국가를 위하여 순국한 허다한 애국지사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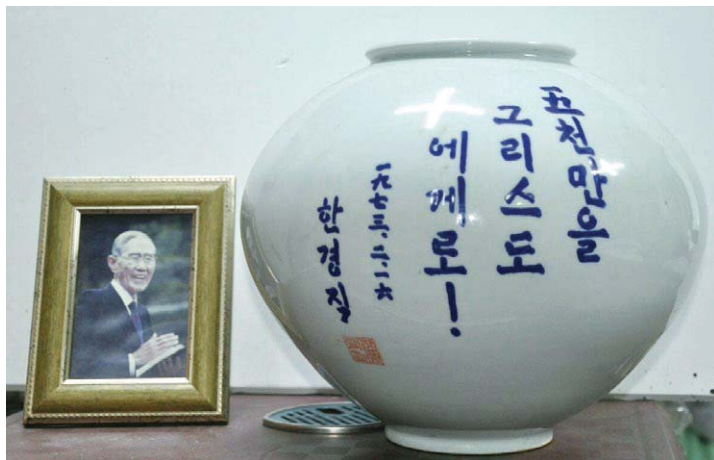
위와 같이 한 목사는 현실 정치에서 기독교적 이상을 가진 기독교인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희망이요 기대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민족의식과 신앙의 외연화

한 목사는 기독교의 주도적 건국 참여와 함께, 기독교의 정치·문화적 개화운동을 동시에 강조했다. 해방 이전, 즉 한반도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던 복음 1세대가 가졌던 진보·보수의 양대 과제를 일거에 종합 수행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의 ‘기독교적 건국론’에서 민족의식과 신앙의 외연화는 해방과 건국에 있어 기독교적 민족의식의 표현이었다.

한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은 해방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적극적 사회 대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화 경향을 띠게 되고, 특히 정부 수립 후 보국,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흐름을 따르다 보니, 새로운 비전 제시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후 한 목사는 주요 관심을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 연합운동, 더 나아가 민족 통일에 대한 어젠다로 방향을 돌린다. 한경직의 민족 복음화론은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교분리와 목회자적 정체성에 입각해서 복음화 운동에 헌신했던 처음 행적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보수성으로 기울었다. 특히 그의 투철한 반공사상과 사회 안정 추구의 열망은 소극적 정치참여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만큼이나 희로애락으로 점철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서 『건국과 기독교』를 통해 한경직 목사의 신앙, 철학, 그리고 삶의 족적은 그의 주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성과 그 전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측면이든 대한민국 탄생 과정에 있어 한 목사의 ‘기독교적 건국론’의 정신 세계와 삶이라는 발자취 앞에, 또 그 실천에 빛지고 있다. **한남**

코로나19 이후 청년부가 달립니다!



강병호 성도
꿈꾸는 땅

정부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라는 공지를 받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청년부에서 또 개인으로서 어떻게 예배할지 고민하고 또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

라인 예배가 가져온 편리성과 함께 갑갑함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디서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이 쌓여,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집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있는 저로서는 편리함을 넘어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만 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는 채워지지 않는 갑갑함이 있기에 저 자신을 위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상 예배 처소를 둘러보니, 슬픈 예상대로 예전의 고민처럼 오프라인 예배 참석자는 저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도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가는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둔한 생각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갈수록 지체들이 돌아오고 주일마다 새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자 증가뿐 아니라 조장과 예장, 각 그룹의 활동자들이 현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

다. 지난 6월 10일~11일 청년부 부서 중 '모리아'와 '꿈꾸는 땅'의 연합수련회로 청년들의 갈급함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세속적인 개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조설아 성도
광야소리

선교는 하나님께 달려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처음 다니던 해, 친구가 여행 가자고 속여(?) 첫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신은 없다고 외치던 제가 처음으로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년 선교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선교인데, 취업하면서 점점 참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년에는 꼭 함께 선교 가자!”라고 영락교회에 저를 인도한 친구와 약속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년 선교 가는 것이 당연했으며,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함께 가기로 했던 선교 약속이 3년 후로

미루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하기에 힘든 시간들...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대되는 한편, 선교를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시간과 많은 일이 두려웠습니다. 청년부 최재선 목사님의 설교 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라는 말씀이 준비하는 내내 남았습니다. 막상 선교 기간보다 준비 기간이 더 긴 시간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최근 친동생을 전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만 다니지 왜 사람들한테까지 교회에 가자고 하는

지 불쾌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면 저렇게까지 전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 같이 알자! 같이 행복해지자! 의미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 모두 알 수 있도록 전하러 가야지!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기대되고 힘이 났던 때는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감소한 청년부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청년부로 회복되길! 올여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방수진 성도
청년회 국내선교부장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새로 찾은 공동체가 영락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의 섬김을 인정받아 오자마자 회장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청년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있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던 기간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기에 충분했고 저는 전처럼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알기에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이끄심이고, 앞으로 만날 청년들도 모두 주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용기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장단 활동은 생각보다 바쁘고 치열했습

니다. 영락 청년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의할 때마다 코로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행사, 기도회, 수련회를 계획할 때 이런 시국에 얼마나 청년들이 올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스러워하는 시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도 존재했지만 저희가 잊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영락교회의 청년들이 다시 예배와 기도회를 찾아 교회로 돌아올 때 청년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우리는 사역을 계획할 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계획보다 위에 계시고 꿈꾸는 소망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

을 만나지만, 이미 청년과 지도위원, 교역자 120여 명이 함께 충남의 지역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충남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각자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는 경험을 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윤영 성도
광야소리

모태신앙으로 자라 일요일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순간이 없었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속이 텅 빈 신앙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한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끝없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괴롭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냐고 원망하던 순간들을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경험해보고 싶었고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투정만 부리던 저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준 친구가 있어서, 저는 올해 처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역시 허락하셔서 이제는 힘들고 벅찬 순간마다 주님이 건네주시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어렵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가 주일이면 지난 모습들을 여전히 회개하는 날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조금하지 않게 저와 주님의 관계를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지나온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기도원에서 만나요 - 여름수련회



대학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고, 수련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교회에서만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여름, 하나님께서 대학부 수련회의 대면 진행을 허락해주셔서 드디어 3년 만에 대학부의 청년들이 영락기도원에 올라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대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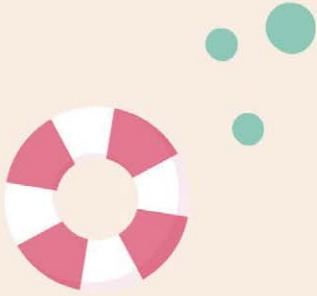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번에 대면 수련회 준비를 하는 제 마음은 자

연히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뛰놀며 친목의 교제를 갖지 못했고, 저녁 집회에서 소중한 친구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함께 뛰며 기뻐 찬양할 수 없었는데,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기간은 인내의 연속이었으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쉬움과 슬픔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육체로는 아직 고통이고 이해가 안 가지만, 믿음으로서는 이미 선하게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학부에 슬픔과 어려움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서는 결국 모두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면 수련회에서, 지난 3년간 경험했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저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매주 교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가족 <With 학생회>와 대학부 예배 및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회의 시작 전, 경건회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에 대한 기대를 넣어 주셨습니다. 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 새로운 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선하고 사랑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억눌린 마음이 '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부는 다가오는 수련회에서 <Go Back to the Future>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Go Back), 동시에 지나간 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Go Back)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To the Future). 주님께서 분명 대학부 청년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며, 억눌렸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대학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학부의 모든 청년이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뤄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하예훈
대학부 107대 WITH 학생회 부회장



존 웨슬리의 고향, 영국 엠피스(Epworth)



존 웨슬리의 생가, 올드 렉토리(Old Rectory)



마을 중앙에 있는 마켓 크로스(The Market Cross)

엠피스 (Epworth)는 영국 동북부 링컨셔에 위치한 인구가 5천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킨 전도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1703~1791)의 고향입니다. 마을 곳곳에 존 웨슬리와 그의 가족의 유적과 활동 내용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웨슬리의 발자취를 좇는 수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엠피스 교회 교구 목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 웨슬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던 점을 생각하면 남다른 부분입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청교도가 많았으며,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많지 않았던 터라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서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라던 중 여섯 살 때인 1709년 2월 목사관에서 청교도의 방화로 추정되는 큰 화재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후에 존



원성원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홍보출판부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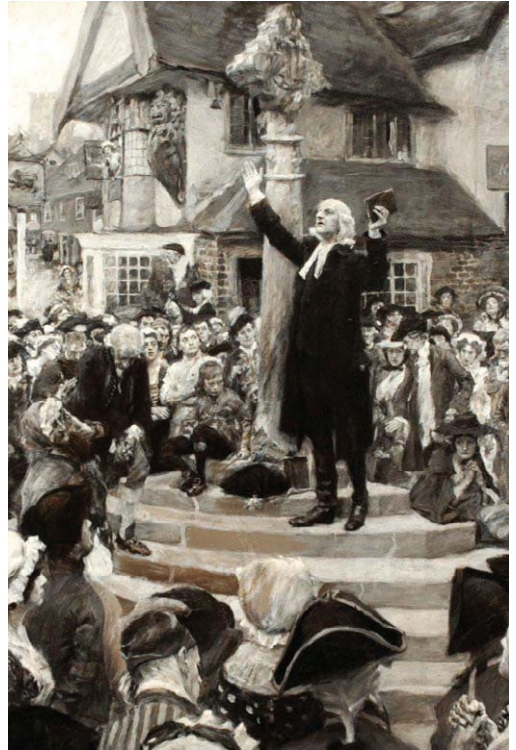
웨슬리는 “불 속에서 건져낸 불꼬챙이(a brand snatched from burning)”라고 스가랴서를 인용한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생가이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목사관이 올드 렉토리 (Old Rectory)입니다. 1735년 아버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족들은 이곳에 살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1709년의 화재 사건 7년 전에도 크게 화재가 발생한 곳입니다. 사무엘 웨슬리 목사와 가족을 쫓아내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목사관의 거의 3분의 2가 불탔었고, 그 이후 1709년 화재가 다시 발생하여 전소되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다시 지어졌고 1957년에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을 위해 구해주셨다는 믿음으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709년 올드 렉토리(Old Rectory) 화재에서 존 웨슬리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모습을 담은 그림



존 웨슬리는 마켓 크로스(The Market Cross)에 서서 자주 설교했다

1714년 런던의 수도원 학교인 차터하우스 스쿨에 입학했고, 이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1725년에는 아버지를 본받아 존 웨슬리도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1727년부터 1729년까지 존 웨슬리는 엠피스 근방 작은 마을 루트의 교회에서 수련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도와 사역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세인트 판크라스 교회 (St. Pancras Church)로 불리며 적은 인원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29년 옥스퍼드에서 동생 찰스와 함께 감리교의 모태가 되는 메소디스트(Methodist) 운동을 시작하고 성경적 경건훈련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1735년 두



세인트 판크라스 교회(St. Pancras Church)



존 웨슬리가 고향 애플워스를 방문할 때 묵었던 레드 라이온(Red Lion) 호텔

형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 주로 떠났지만 기대했던 선교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 좌절감과 낙망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오순절 주간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거리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해 로마서 강론을 듣던 존 웨슬리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올더스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큰 전환점이 된 이때부터 존 웨슬리는 과거에 열심히 지켜왔던 엄격한 규칙들과 성공회의 틀에 박힌 형식들을 벗어나 버리고, 영적 능력이 있는 전도자로서 변신하여 영국 전역으로 순회 설교를 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

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고향인 애플워스를 방문하여 거리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지금도 운영 중인 작은 호텔 레드 라이온(Red Lion)이라는 곳에 숙박하며 호텔 앞 사거리인 마켓 크로스(The Market Cross)에서 설교했습니다. 현재 애플워스 마을 중앙의 작은 석탑에는 존 웨슬리가 이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거리 설교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자 성공회 주교는 존 웨슬리에게 성공회 목사들은 정해진 교구에서 설교해야 하는데 그는 특정 교구에 소속되지 않았기에 설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The world is my parish)라고 대응하며 거리, 빈 들, 빈민가 어디서나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존 웨슬리 생가인 올드 렉토리와 마켓 크로스 사이에는 2003년 존 웨슬리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존 웨슬리 동상이 있습니다. 왼손에 성경



세인트 앤드류 교회(St. Andrew's Church)의 내부 모습

을 들고 설교하는 모습의 이 동상에는 “엠펙스를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사랑하며,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회심 후 성공회를 나온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회 교단의 모습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교인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 감리회가 생겨난 것이 그 기원이며, 이

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존 웨슬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성공회는 이런 감리회를 배척했습니다. 1742년 고향을 찾은 존 웨슬리는 자기가 태어나 어린 시절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으며, 아버지 사무엘이 40년 동안 시무했던 세인트 앤드류 교회(St. Andrew's Church)에서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성공회 탈퇴자였던 그였기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회 재산이 아닌 단 한 곳, 교회 바로 앞 아버지 사무엘의 무덤의 묘비 위에 올라가 엠펙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약 1주일 동안 이어진 무덤에서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전도를 위해 들판과 산, 언덕과 길 거리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곳에서 약 4만 2천 번을 쉼 없이 설교하며 복음을 외쳤고,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존 웨슬리의 믿음은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에 관한 열정과 도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만남**



존 웨슬리 동상



아버지 사무엘의 무덤

만남의 축복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삶을 정의합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만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되고, 매 순간순간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르심의 순간조차도 또 다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만남이 영락교회의 월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 『만남』 지면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만남』을 전달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영락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귀한 만남의 자리에서 있는 이 『만남』을 통해 저의 삶에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

일요일 늦은 저녁 경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저



박성민 전도사
성남·분당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는 그곳에서 목사이신 아버지와 사모이신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친구의 모습으로, 조연자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많은 칭찬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이나 사랑을 칭찬하는 많은 성도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훌륭한 인품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는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다툼을 본 적이 없었으며, 그 사실을 그저 자랑스럽게만 여겼는데,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인내가 그 뒤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인내의 손길로 저를 지금까지 붙잡아주십니다. 이 모든 손길의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게 교회는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하루 2번의 예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된 일입니다. 그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니,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에 가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중학생이 되어 맞이한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 시간을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다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시간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패션 오브 크리스티>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처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시간에 본 그 영화를 통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머리로, 또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만남의 축복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지나 지금은 영락교회를 만난 축복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며,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지를 더할 나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이 모든 분에게 이어지기



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다양한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이 만남을 삶의 모든 곳에서 교제하며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내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망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화 혹은 챗바퀴 돌기

최근 토요일 저녁에 익숙한 전화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라서 주저했지만 급한 교회 일이라 생각되어 전화를 받았습시다.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뜻밖의 사람이었지만, 첫 음성을 듣자마자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전화 상담을 통해 만났던 K 형제였습니다. K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우울증 환자임에도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혼자 지내는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K를 상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K는 은근히 ‘영락의 전화’ 상담자들에 대해 혐오와 혐담, 가스라이팅(gaslighting effect) 성향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의도

대로 상담의 방향이 형성되지 않으면 공격성을 띠며 저의 신앙에 관련하여 모욕적인 수준의 언변도 서슴지 않았고, 결국 5회기 만에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K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시 상담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적절한 지침에 따라 저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회기의 상담을 기약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상담

미래에 관련한 우리의 관점은 보통 기독교 세계관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상식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내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관련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전합니다. 내일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미래를 그의 모국어인 독일어 포트룸(Futurum)과 교회력(대림절) 용어인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포트룸은 과거와 현재에 의해 결정된 미래(What will be)이고 아드벤투스(Adventus)는 현재와 과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미래(What is coming)입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아드벤투스(Adventus)로 이해되어야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찾아오는 미래인 아드벤투스(Adventus)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
나님(요한계시록 22:20)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며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 놓은 과거
와 현재를 초월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

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되는 내일을
기약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보는 내일입니
다. 이러한 시선은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는 시인 마종기님의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오랫동안 별을 싫어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인지
너무나 멀리 있는 현실의 바깥에서,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안쓰러움이 싫었다.
외로워 보이는게 싫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북부산맥의 높은 한 밤에
만난 별들은 밝고 크고 수려했다.
손이 담길 것같이 가까운 은하수 속에서
편안히 누워 잠자고 있는 맑은
별들의 숨소리도 정다웠다.

사람만이 얼굴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던 옛날에는
아무데서나 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별을 믿지 않고
희망에서도 등을 돌리고 산다.
그 여름 얼마 동안 밤새껏,
착하고 신기한 별 발을 보다가
나는 문득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죽은 동생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사랑하는 이여,
세상의 모든 모순 위에서 당신을 부른다.
괴로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순간적이 아닌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게도 지난 몇 해는 어렵게 왔다.
그 어려움과 지친 몸에 의지하여 당신을 보느니

별이여,
아직 끝나지 않은 애통한 미련이여,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기쁨을 만나라.
당신의 반응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도 당신의 별을 만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8~19)



별을 만지는 기쁨

삶의 터전을, 나아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이라는 현실의 자리를 마중기 시인이 말하는 별을 만지는 기쁨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마다의 의견이 있겠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자신이 처한 삶에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미래에서 찾아오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쉬거나 지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전히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책임과 의무의 강박을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희

망을 품고 낙관적인 자세로 상담의 자리 또는 현실과 마주칠 때,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피우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혹은 책임이 없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힘겨워, 잠시 주저앉더라도 하나님께 기대(잠언 24:16)어 사명의 자리를 기대하고 지키는 모든 상담자와 성도님을 이 여름 더위보다 더욱 뜨겁게 응원합니다. 명량상담! **만남**

성전에 올라가 청소합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시편 122:1)



본당 청소 봉사

지난해 4월 초순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영락교회도 대면예배가 멈춰지고 교회의 모든 부서 활동이나 봉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던 교인들에게 정신이 번쩍들 만큼 영적 위기감과 함께 평탄하던 신앙생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던 이 시기에 자원봉사부 교회 환경팀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는 썰렁한 예배당이지만 정상적인 예배의 회복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청소라도 해보자는 제안을 교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청소 봉사이기에 모두가 낯설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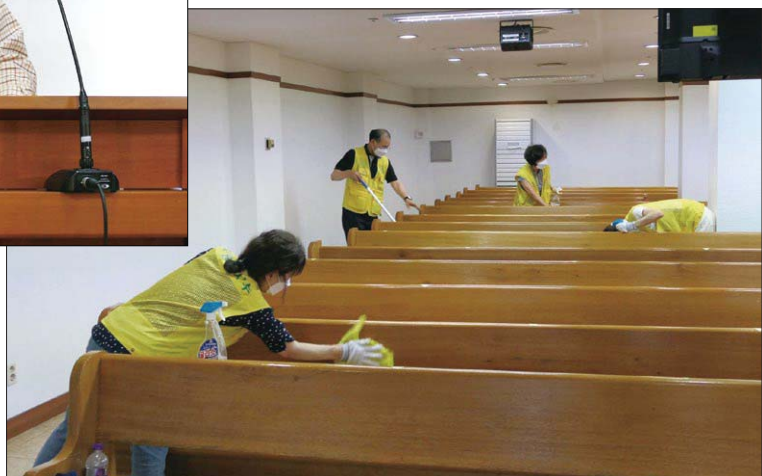
험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 젊은 청년들과 IT미디어부에 의뢰



최익준 안수집사
인천교구
자원봉사부 교회환경팀차장



◀▼ 벤엘예배실 청소 봉사



한 동영상을 통한 영상홍보, 자원봉사부가 직접 제작한 청소 매뉴얼 등을 열심히 준비하여 자원봉사부 임원들부터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소장소로 벤엘예배실, 자모예배실, 중보기도실을 정하고,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축소 또는 제한되었던 터라 본당을 제외한 부속 예배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쌓인 먼지와 퀴퀴한 냄새 등 교인들이 예배드리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상태였지만, 청소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벤엘예배실과 주변 예배실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예배실을 방문하는 성도들께서 청소 봉사 후 달라진 예배실 환경 변화에 놀라시는 모습을 보며 청소봉사자들은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청소 봉사

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 봉사가 활기를 띠고 봉사자들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변종 발생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어쩔 수 없이 청소 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부 임원들과 청소봉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유행이 잦아들고 종료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봉사하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개월의 긴 기다림과 공백을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교회사랑 청소 봉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봉사 재개를 기다리던 봉사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드리고 새로이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적잖은 봉사자가 이탈되었기



청소봉사를 마치고 최재선 목사님과 기념촬영을 했다

에 새로 시작하는 청소 봉사가 어렵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작년에는 자원자가 없던 화요일과 토요일에 봉사자들과 함께 청소 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팀장님들과 본당 청소만 전담할 수 있는 팀장님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봉사자에게 청소 봉사의 지원 동기를 물으면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라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다고 하십니다. 마침 자원봉사부 청소 봉사 모집 광고를 보는 순간 곧바로 자원했다면서 청소 봉사를 통해 성도로서의 본분을 발견하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밝게 웃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현장 예배와 성도들의 봉사활동이 살아나면서 평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고 성도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가 함께 교회 마당을 밟으며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맘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영락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풍성한 헌신자와 봉사자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청소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락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의 정체를 ‘전환기’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국 교회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롯된 기후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획일적 문화와 공동체 중심의 시대정신에서 개인 중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정신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

문명사적 전환기에 교회 역시 변하고 있다. 고든 콘웰신학교의 짐 싱글턴(Jim Singleton)은 북미교회의 역사적 흐름을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한다.¹

첫째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 교회’이다. 5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북미 사회에서 상당한 특권

을 누렸다. 한때 미국 국민 중 73%가 교회 소속이었고, 48%가 출석 성도였다고 한다. 북미에서 교회는 사회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학자와 신학자는 한목소리로 크리스텐덤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 단언한다.²

한국은 서구사회와 같은 크리스텐덤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동민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유사 크리스텐덤 현상을 경험했다.³

따라서 한국 교회 미래를 논할 때 북미교회가 앞서 걸었던 길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는, ‘매력적인 교회’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교회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전략을 기획한 것이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월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새들백의 릭 워렌, 빈야드의 존 윌버와 같은 분들이 이런 운동의 선구자였다고 하겠다. 매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상당수



허요한 목사
안산제일교회

2022구역장대회 설교 요약입니다.

- 1 짐 싱글턴의 견해는 2019년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초한다.
- 2 Tod Bolsinger, Canoeing the Mountains: Christian Leadership in Uncharted Territory (Downers Grove: IVP Books, 2015), 12.
- 3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참조.

의 대형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2천 명 이상의 회중이 모이는 교회가 200개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1,300개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셋째는 ‘선교적 교회’인데 ‘매력적인 교회’의 한 계에서 시작된 교회의 갱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Missio Dei).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렇기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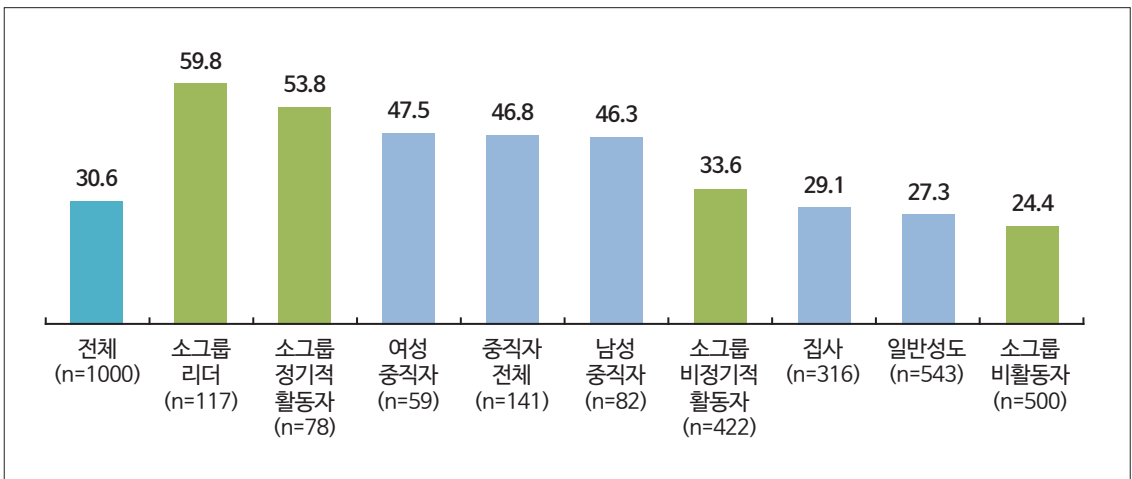
님에 의해 보냄 받음에 있다. 그것이 처음 교회가 이해한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 선교만큼이나, 현대문명에 취해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 자체가 가진 매력에 집중한다.

동질성의 원리를 뛰어넘어

지구촌교회와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한 한국 교회 소그룹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2021년 11월 2일 자료).

[그림] 교회 내 그룹별 신앙수준 상위자 비율

(Base=전체, N=각 그룹별 사례수, 단위: %)



* 신앙수준 상위자 기준 = ‘코로나 이전보다 양적 신앙생활 늘어남’ + ‘코로나 이전보다 질적 신앙 수준 깊어짐’ +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매우 일치’ + ‘신앙단계 4단계’

소그룹은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소그룹의 필요성은 신학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거하신다는 점이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사역하신 것은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일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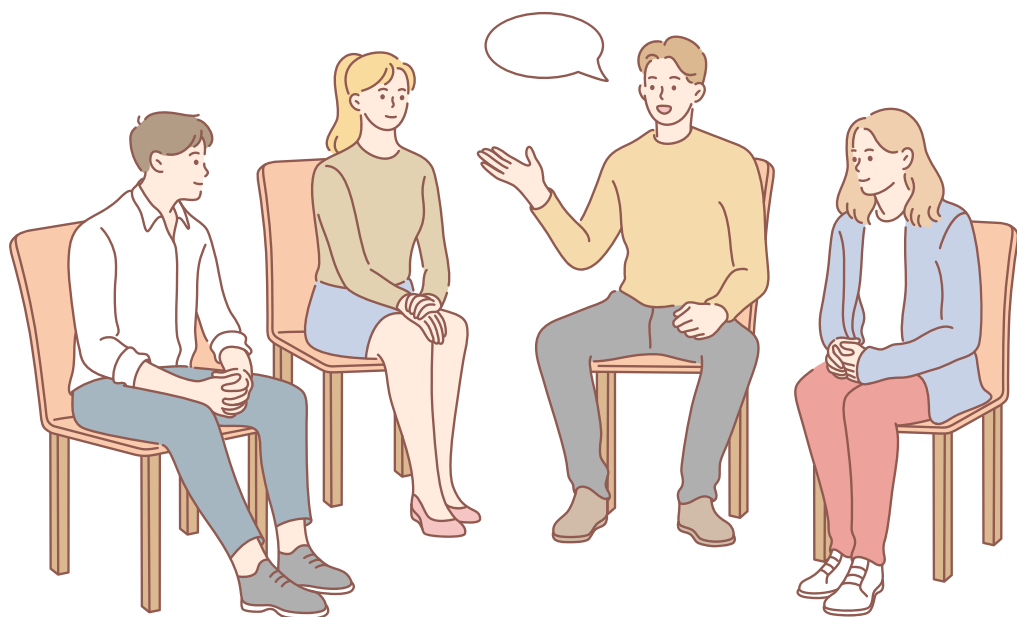
운다. 다만 기존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명사적 전환기에 어울리는 선교적 소그룹을 생각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목회자는 비슷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눔도 잘하

고 소그룹 사역도 성공하게 된다. 그것이 동질성의 원리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동질성의 원리가 어느 순간 답답하게 느껴졌다. 사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는 동질성의 원리를 뛰어넘는다.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들 면면을 보라. 직업이나 정치에 대한 태도가 완전 판판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도 있고, 세리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로마에 대해 우호적인 제자도 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급진적인 활동을 하던 제자도 있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모이게 되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기간 동안 이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견해 차이는 또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품으셨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훈련받았다. 그래서일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흩어진다. 또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흩어졌다는 말이다. 그게 선교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선교적 소그룹을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선교적 소그룹을 세울 수 있을까?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은퇴한 게리 유클(Gary Yukl)교수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리했다. “리더십이란 한 조직의 목적에 대해 헌신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먼저 리더십이란 특정 목적에 대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리더십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헌신자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이런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 먼저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들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에 대해 헌신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셨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





령을 보내주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나눠주신 것이다.

이와 함께 살펴볼 점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철저하게 선교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훈련하셨다.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그룹을 본받을 때가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싶다.

(1) 마음 얻기

리더는 일을 많이 한다. 봉사도 열심히 한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헌신한다. 그런데 때때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이 별로다. 왜 그럴까?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2) 잘못된 우월감 버리기

교회가 세상에서 낮은 신뢰를 얻은 것은 잘못된 우월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선교적 소그룹의

리더는 우리 모두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리더가 빛을 던지는 것과 연결된다. 빛 아래 머물면 참된 사귄이 있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3)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선교적 교회는 마을과 도시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더 큰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맺는말

막차는 이미 떠났다. 20년 전인지, 30년 전에 이미 떠났다. 그러나 첫차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누가 첫차를 탈 수 있는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이질적인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조금 다른 상상력을 가져보자. 이질적인 그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자. 신학적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를 구하자. 바로 그런 자들이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막히면 돌아갈 줄 안다. 물은 구덩물까지 받아준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다. 물은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 물은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물은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룬다. 이질적인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물과 같은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른다. 물처럼 흐른다. **만남**

창립50년, 갈렙처럼 꿈을 꾸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2년,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을 둔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예배 시간에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선에 권사님의 지도로 주님의 제자 된 삶에 관한 말씀을 배우다가, 이듬해인 1973년 12월 비로소 봉사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청계천을 복개 공사하면서 강제 이주한 청계천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망원동 뚝방마을 주민 30 가구를 찾아, 준비한 조그만 선물(돼지고기 1근과 사탕 한 봉지씩)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나눈 따뜻한 성탄절의 추억이 우리를 봉사의 삶으로 이끌며, 정식으로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백합회! 주선에 권사님이 지은 이 이름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따를 수 없던 하나님의 걸작, 주님의 자녀 된 우리 젊은 여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백합회(현 회장 박순복 권사) 초기였던 1970년대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서 교회가 희



강순애 은퇴권사
중구·용산교구
백합회 초대회장(1974~1975)

망이던 시기였습니다. 뜻있는 많은 분이 목회에 헌신했는데, 다들 어렵다 보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선에 권사님의 소개로 저희와 만났던 이상양 전도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청계천 이주민들을 위해서 전도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한편, 육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도 손수레를 함께 끌며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다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땀 흘리던 분이었습니다. 그 섬김에 감동하여 서울 망원교회를 돕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목회자 생활비, 등록금을 지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한 대지 구매비도 지원하고, 교회의 종탑, 발전기, 기타 교회 비품 등을 지원하면서 충남·북, 전남의 7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1970년대 당시는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모든 군대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자는 목표하에 군 선교에 매진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합회에서도 떡, 빵, 사과, 사탕 등 위문품을 준비하여 사단 또는 연대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나누어 줬으며, 강대상, 교회 의자, 마이크, 캐비닛 등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비품들을 기증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군선교를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군 선교사역을 통합하여 담당하면서 그 바통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내,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마다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지금은 전담 조직들이 빈틈없이 섬기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각 부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우리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969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직장인 금요 정오 예배>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 목사님이 옛 선교관 앞뜰에서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직장인 예배를 만드시며, 예배를 섬겨달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저와 친구들이 섬겼는데, 인근 대기업에서 많이 참석하게 되어 100명을 넘기면서 백합회가 담당하여 섬겼습니다. 1973년부터 8년간 매주 금요일 정오에 백합회 회원들이 예배 참석 직장인들을 위해 커피와 음료로 섬기며, 교대로 안내 봉사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또 1976년부터 3년간은 탁아부를 맡아 온전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예배는 2019년 9월, 5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고, 오늘날까지 회사업무와 세상에 치진 교회 주변 직장인들의 오아시스 같은 쉼을 허락하는 예배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역의 중심이 국내의 미자립교회, 군선교, 학원선교 등에서 외국인, 해외 선교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과나 탈북자들에게 숙소구매비, 정착비 후원, 부식비 등을 지원하면서 급증하는 국내 외국인 선교에 발을 디뎠으



며, 본 교회 파송으로 해외에 나가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비 지원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백합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희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걸음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없이, 단지 하나님이 그때, 그곳을 도우라 하시면 그때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힘자라는 대로 섬기다 보니 50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때의 젊은 여인들은 백발의 노년으로 바뀌고 기력도 많이 쇠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85세의 갈렙처럼 우리는 여전히 꿈을 쫓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백합회를 통해, 또 다른 “젊은 여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꿈을. 그리고 꽃은 시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가는 그런 꿈을 쫓습니다.

이런 꿈을 저희와 함께 할 새로운 백합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남**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하나?

현대인의 수명 단축 원인이 만성질환?

현대인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고 3명 중 1명은 비만이며, 30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또 고지혈증도 3명 중 1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들 질환은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10대 사망원인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 선조들보다 나쁜 상황일까요? TV에 보면 현대 사회를 떠나 산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인 듯 방송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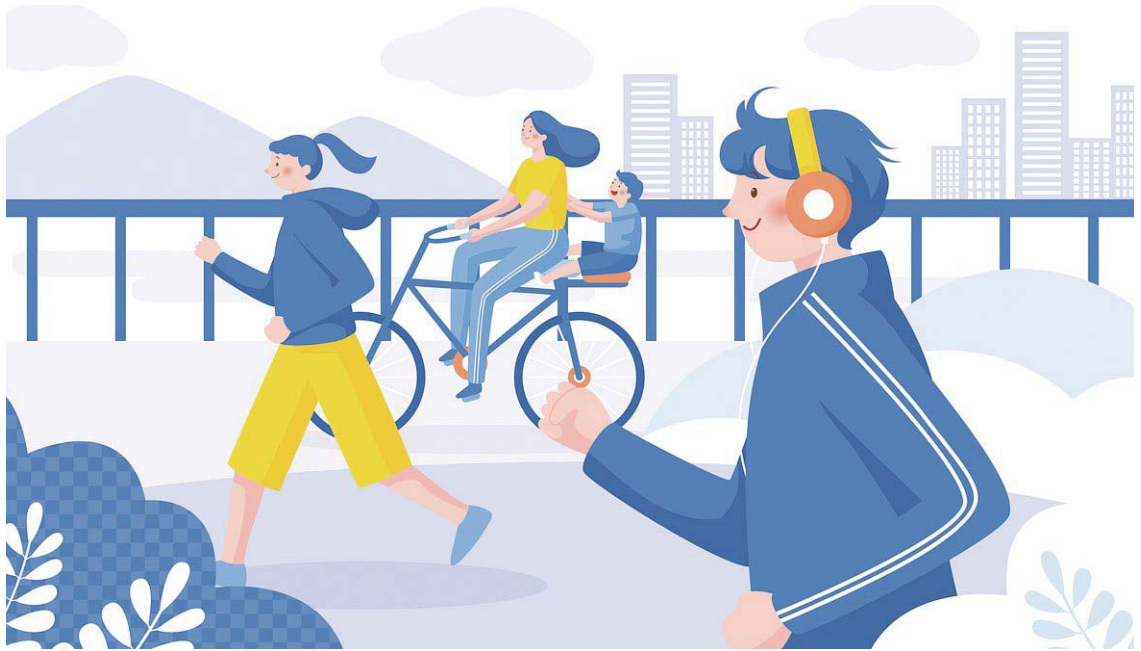
박도준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선 시대 왕의 평균수명은 불과 4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27명의 왕 중에서 60세를 넘긴 왕은 불과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결코 건강에 좋은 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왕의 건강은 나라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최상의 의료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몇몇 독살 의혹이 있는 왕을 제외하여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40세에서 고작 44세로 늘어날 정도로 현대인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말년에 당뇨병으로 많이 고생하다가 52세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현대인이 과거의 선조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적었던 것은 이러한 성인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사망했기 때문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만성질환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은 조상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매우 건강한 삶을 살며,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과 운동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앞서 언급한 대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전에 비해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환경이 견디기 힘든 환경이라서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또래가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



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성질환 발생 원인의 100%를 도시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거나 도시를 떠나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만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속에서 생활하다가 적기에 필요한 관리를 놓친다면 더 악화할 수 있으니, 시의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식사와 운동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종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강조되지 않는 것들만 간단히 언급한다면 우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는 적정량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병에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근거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해당 성분의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때 누에가루가 당뇨병

에 좋다고 하여 많은 당뇨병자가 누에가루를 먹는 것이 유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약 중에 누에가루와 비슷한 성분의 아카보스라는 약이 있는데, 한 달에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이 약으로도 충분한데도 많은 당뇨병자가 한 달에 20여만 원의 누에고치를 먹었던 것입니다. 운동의 경우, 의사들의 ‘오래 살려면 유산소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근력운동을 하라’라는 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소운동과 더불어서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동의 효과는 48시간 정도 유지된다고 하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지속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약의 복용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 처방한 약을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흔히 “약은 곧 독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현재 만성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10)



질환에 사용되는 약은 오랜 기간의 임상시험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검토한 약이므로 처방을 지켜서 복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약 사용을 권하면 많은 분이 “평생을 먹어야 한 다는데 어떻게 먹냐?”고 복용을 꺼리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그러면 약을 먹지 않는 대신 식사량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시고, 하루 4~5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하면서 살 수 있느냐고 하시면, 그때 저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체중감량과 운동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 약을 하루에 한 알만 드시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약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만 조절하다 건강을 완전히 잃을 수 있으니,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의 복용이 중요합니다. 또 바빠서 복용 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세 번씩 20~30분의 식사는 거르지 않으면서, 10초면 충분한 복용 시간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음 처방할 때 부작용 검사를 거친 후에 부작용 없음을 확인 후에 장기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1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의 1/4 정도입니다. 만약 부작용이 보이면 즉시 약을 끊고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의 부작용이 무서워 약을 못 먹는다면 교통사고가 무서우니 교회도 직장도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만성질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에는 환경, 먹는 음식, 스트레스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의학의 발달이 가져온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젊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인체 기능을 완전히 정상으로 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식사나 운동 등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동시에 적합한 약을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학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한 적합한 관리가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남**

찬양의 요람, 교회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아카데미 대장 김석곤 안수집사, 총무 박승근 집사



2019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연주회에서 강사로 수고한 홍석호 집사 지휘로 수강생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비대면 강의

“한 주에 2시간가량 수강이 처음에는 부담되었으나,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진 온라인 강의에 빠져들면서 점점 마음이 감동되었으며, 많이 은혜 되었다”, “찬양하고 싶으나 찬양대로 활동하기는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교육을 수강하며 찬송가 부르는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생활 속에서 생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대면 교회음악아카데미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편한 시간에 집에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교회음악아카데미 온라인교육강좌 수강 소감 중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던 <교회음악아카데미>는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IT미디어부 지원으로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전, 하반기 각 10주차 과정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반과정의 1, 2교시에는 ‘교회음악 특강’과 ‘찬송가로 배우는 음악 기초와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박신화 장로, 조성환 장로, 장세완 장로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8개 찬양대 지휘자가 주축이 되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 직접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2교시에 진행한 찬송가 이해와 실습을 백정진 학감(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과 강사들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이를 피드백하는 양방향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성악과 관련하여 심도깊은 교육을 위해 개설한 ‘전문과정’도 역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대 1로 진행한 ‘전문과정’은 직접 보고 들어도 어려운 발성과 호흡 등도 비대면으로 진행했기에 몇 배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사들의 정성과 수강생들의 열심을 서로 공감할 수 있을까 우려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교육과정에서 정성과 열심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비대면에서도 <교회음악아카데미>가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신도 음악교육을 목표로 설립

올해로 25년이 되는 <교회음악아카데미>는 과거 호산나찬양대에 갓 부임한 장세완 지휘자(현장장)의 적극적 제안으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선배들이 다져놓은 찬양의 옥토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감동이 있는 찬양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교회음악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드디어 1996년에 담임목사를 원장으로, 음악부장을 부원장으로, 장세완 지휘자를 학감으로 구성해 출발했습니다. 예비 찬양대원을 위한 ‘일반과정’과 기존 찬양대원을 위한 ‘전문과정’, ‘심화과정’이 개설되었고, 각 찬양대도 간식이나 봉사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음악아카데미>는 설립부터 평신도 음악교육을 지향했기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일반 교인도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워하지 않는 커리큘럼 연구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타 교회 교인들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서 매 학기 수강하는 타 교회 교인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타 교회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낮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임하시는 강사님과 인근 교회와 교계에 전단을 전달하면서 인지도를 넓



1998년 12월 13일 제6기 수강생들이 임원진, 강사진들과 함께 수료기념식을 가졌다. 1996년 시작한 교회음악아카데미는 매년 전후반기로 2회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전반기 과정을 마친 후 강사, 수료자, 임원진들이 선교관에서 졸업연주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했다

히고자 노력한 교회음악아카데미 임원들의 헌신 덕분에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25년에 걸쳐 교회음악아카데미 교육에 열정으로 임해주신 강사분들과 헌신하신 전임 임원진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을 위기가 아닌 도약의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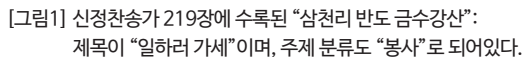
이제 팬데믹 시대가 완화되면서 8개 찬양대를 비롯하여, 교회 내 다양한 찬양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단원 입대에 발맞추어 <교회음악아카데미>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팬데믹 중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대면 연습으로 한정되었던 교회음악교육을 비대면 영역으로 넓혔으며 그에 따른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축적한 찬양 달란트를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교회 교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음악을 교육받고 싶어 하는 중학생을 수강자로 받으면서 아동들

도 소중한 예비 찬양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께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교회음악아카데미>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 한국 교회음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중보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들의 능력과 열정이 지치지 않으며, 수강생들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반기 지도를 담당하신 최한운 목사는 창세기 10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인용하시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찬양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강생과 강사님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1931년 〈신정 찬송가〉에 219장으로 처음 수록되었는데, 일본은 이 찬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먹칠을 하거나 찢어버리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가사를 외워서 더 열심히 불렀고, ‘애국찬송’으로서의 입지가 견고히 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1]

찬송의 곡조는 본래 도니제티(G. Donizetti, 1797~1848)의 유명한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 2막에 나오는 결혼 축하 파티 장면의 합창곡에서 온 것인데, 미국 〈면려회 찬송가〉(The Endeavor Hymnal, 1901)에 “들으라 저 나팔소리(Hark! 'Tis the Clarion)”라는 가사와 만나면서 찬송가에 유입되었다. (한국 찬송가의 “행군 나팔 소리에”나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 〈면려회 찬송가〉는 〈신정 찬송가〉 편찬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었고, 이때 남궁억 선생께서 이 곡조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하여 붙임으로 ‘그리스도인의 행군 찬송’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던 우리나라의 ‘애국찬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원곡인 오페라에서는 결혼 파티 장면 직후에 사랑하는 이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정략 결혼을 견디지 못한 신부가 신랑을 죽이고 노래하는 ‘광란의 아리아’가 더 유명하지만, 이 축제의 합창 만큼은 오페라의 어두운 분위기와 상반되게 밝고 힘찬 분위기로 가득하다. 지금은 어둡지만, 조국에 ‘봄이 돌아오고’, ‘곡식이 익을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찬송의 가사 내용이 축제 분위기의 힘찬 곡조와 매우 잘 어우러졌다고 할 수 있겠다.

작사자인 한서 남궁억 선생(1863~1939)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그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이 찬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짧게나마 소개한다. 영어학교를 졸업(1887)하고 고종의 어전통역관으로 관직에 등용되었으나, 아관파천(1896) 직후 관직을 사임한 후, 서재필,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창립하였고,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발행에 참여하였다. 이후 관직에 재임명되었다가도 을사조약(1905), 정

미칠조약(1907) 등 국권이 침탈당할 때마다 통분을 참지 못함으로 사직하기를 반복하였다. 한일합방(1910) 후에는 다음세대 교육에 뜻을 두고 배화학당에서 교사로, 상동청년학원 원장(1912)으로 기독교 교육에 앞장섰으며, 이 시기에(1911)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1918년 건강 악화로 선친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보리울)로 낙향하여서도 모곡교회(현 한서교회)와 모곡학교를 설립(1919)하여 무궁화 묘포를 만들어 무궁화 보급 운동을 주도하였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독립협회 해산을 비롯한 언론사 탄압과 투옥을 당하면서도 일제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온전한 사실을 나라에 알리며, 배화학당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조선의 지도 위에 무궁화로 수를 놓게하고, 모곡학교에서 놀이를 통하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게 함으로 민족정신을 젊은 세대에 심어주고자 했던 작사자가 ‘하나님 주신 동산’을 바라보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림 2]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대 언어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신앙 추구의 방향과 노래도 그 시대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이 나라에 할 일이 무엇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전한 조국의 모습을 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노래도 상한 심령을 향한 위로와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인다. 게다가 대세 또는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전략이 된 사회문화 속에서 옛것의 가치와 그 시대의 노래들은 자연스



[그림2] 남궁억 선생이 고안한 13송이 무궁화 자수:
제주도와 독도까지 꽃잎과 꽃받침으로 표현하였다



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가지는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19)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여호수아 4:21)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들을 길가에 세웠듯이, 돌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정표(찬송)를 통하여 우리의 과

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는다면 바로 오늘이 가장 큰 감격으로 이 찬송을 노래할 수 있는 때가 아닐지..

옛날은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에 이를 신앙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만남**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충남 고대도-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의 발자취를 따라

순조실록에 의하면, 1832년(순조 즉위 33년) 7월 21일 영국의 탐사선 로드 애머스트호(The Lord Amherst)가 안면도 남쪽 고대도라는 작은 섬의 안항에 정박했다. 로드 애머스트호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휴 해밀턴 린지(Lindsay) 선장과 67명의 선원들은 중국 광둥, 상해, 위해를 거쳐 황해도 연안을 따라 충청도 해안에 다다랐다.

이들은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독일인 루터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utzlaff, 한글 이름 곽실렵)가 통역관 겸 의사로 동행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

신교 선교사이다.

7월 26일 홍주 목사(오늘날의 충청남도 홍성군수) 이민희와 수군 우후 김형수가 애머스트호에 승선하여 하룻밤을 지내면서 방문 목적을

물었다. 린지 선장과 귀츨라프 일행은 한자로 문답하면서, 조선 왕께 드리는 서신을 통해 정식으로 통상을 요청하고,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神天聖書)』 등 서양 책자와 망원경 등의 선물을 진상했다. 귀츨라프는 조정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섬에 머물면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고,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전수하고, 감기 환자 등 병자들을 치료했다. 한편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양씨 성을 가진 선비와 함께 한자로 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번역 원문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한글 최초의 주기도문이다.

8월 9일 조선 조정은 통상 금지를 통보했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조선 선교의 꿈이 깨어진 채, 8월 12일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는 갑판 위에서 멀어져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조선인에게 전했습니다. 조선 관리를 통해 전달한 성경을 조선 국



칼 귀츨라프(1803~1851)





| 사진제공 보령시

왕이 받아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을 받은 고대도 주민들을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선의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귀츨라프 선교사가 찾아온 1832년은 선교의 암흑기였다. 1800년 정조가 급사한 뒤 순조가 11세 어린 나이로 등극했다. 정순왕후 섭정 하에 노론 세력은 1801년 신유박해를 일으켜 주문모 신부,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이 순교하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했다. 남인 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노론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1803년 독일의 피리츠(Pyritz)에서 태어난 폴란드계 유대인이다. 베를린의 모라비안 목사 요하네스 야니케(Johannes

Janicke)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사람의 죄성을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일평생 해외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결심에 따라 20살의 나이에 네덜란드 선교회에 가입하여 로테르담에서 신학, 말레이 언어, 의학을 포함한 3년의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1826년 23세의 나이에 루터교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 받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즈음 영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통상 지역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1,000톤급 애머스트호는 중국 동해 연안, 즉 한반도 서쪽을 따라 항구를 돌아다니며 지형을 측량하고, 정치, 경제, 군사정보를 수집했는데, 린지 선장은 중국어에 능통한 귀츨라프 선교사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조선 땅 고

대도에 잠깐 머물렀던 귀츨라프 선교사는 이듬해(1834년) 『중국 연안 항해기(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를 펴냈는데, 이 책에 중국 선교의 꿈과 조선 방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프리카 선교로 이름난 리빙스턴 박사는 귀츨라프 선교사의 책에서 영감을 받고 중국 선교를 희망했으나,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 대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서 평생을 헌신했다. 한글에도 관심이 있었던 귀츨라프 선교사는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유럽 세계에 한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귀츨라프가 20여 일을 체류한 고대도는 안면도 영목항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면적 0.92km²(여의도 면적의 1/9)의 작은 섬으로, 현재 태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청정 지역이다. 대천항에서 고속선으로 50여 분만에 도착하며, 원산도에서 배

를 임차하여 고대도교회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1982년 설립된 고대도교회는 개신교 최초의 복음 전래지로서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2001년 〈칼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교회〉로 신축됐다. 기념전시관에는 귀츨라프의 사진과 선교사역의 의미, 귀츨라프 조선 항해기 중 주요 내용 등이 전시되어있다. 등대가 없던 시절, 고대도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등대 역할을 하여, 주민들이 고달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뱃길이 안전하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다.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비에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 번역,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소개했다는 내용이 새겨 있다. **만남**

편집부



| 사진제공 보령시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2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멈춰 섰던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재난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 독서행사 공모전에서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① 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②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역할, ③ 빛진 자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실천의 3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과 교회생활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기후 변화의 위기는 아직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

제이고, 이와같은 재난상황은 향후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로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마다 소외되고 약한 자를 품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주셨던故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기존 참여 부문 외에 아티클 부문이 신설되었으니 더 풍성하고 북적북적한 독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부문

응모부문		제출형식
글	독서감상문 수기, 시	A4 2~3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아티클 (Article)	A4 10매 이내,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논지가 담긴 칼럼형식으로 작성 ▶ 주제와 관련하여 아티클 부문 선정도서와 일반 부문 선정도서를 같이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
그림	회화 포스터 웹툰	JPG 또는 PDF 파일 ▶ 수상자는 원본 제출
영상	UCC 메타버스	▶ 메타버스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작 후 화면을 녹화한 영상파일 제출 ▶ 영상 : 확장자 avi, wmv, mp4 등 (1280*720 픽셀 이상, 3분 이내, 500MB 미만)
자유형식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표현

선정도서

1. 청소년부(중·고등학생)

「시간을 잇는 아이」 정명섭, 박지선. 책담. 2021

2020년 코로나19 시대와 1918년 일제강점기 무오년 독감 시대를 살아가는 두 주인공의 시선을 담은 청소년 소설이다.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차별과 소외의 그림자 속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허덕이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교도서관저널〉 2021년 11월호 도서추천위원회 선정도서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공우석. 반니. 2018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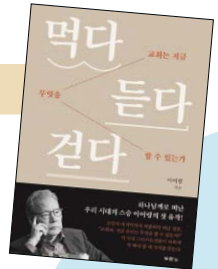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2. 공통(청소년, 대학·청년, 장년)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2022

故 이어령 박사의 첫 유작.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하면서, 저자의 풍부한 인문학적 식견과 통찰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세계를 ‘명사’에 가두지 않고 ‘동사’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린 엑소더스」 이진형. 삼원사. 2020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 책은 ‘기후 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과 교회’라는 부제에서 보듯, 기후 위기의 현실을 조명하고 창조 세계의 회복과 환경 보전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인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3. 일반부(대학·청년, 장년)

「모호한 삶 앞에서」 김기석. 비아토르. 2020

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19!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인간상은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준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 리치 빌로다스. IVP. 202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함, 혼란, 적대감, 중독, 내면의 분노와 같은 현대 사회의 위험한 리듬에 내몰리고 있다. 복음은 왜 현실 앞에 무력해 보이는가?

저자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5가지 핵심 제자도의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2021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올해의 책(영성 형성 부문) 수상작!

「어둠 속의 촛불들」 로완 윌리엄스. 비아. 2021

표지에 그려진 세 개의 촛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더 어두워진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가난한 자들,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4. 아티클 부문(청소년, 대학·청년, 장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김수진. 홍성사. 2010

故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하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전기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회사 전문가에 의해 씌여진 목사님의 일대기이다.

목사님의 무소유와 나눔·봉사정신은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키워 실천했는지를 보여준다.

「나의 감사」 한경직. 두란노. 2010

〈나의 감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구술 자서전이다. 이 책에서 그려지는 목사님의 인생은 온통 ‘감사’로 표현된다.

‘나의 나뉘를 감사하다’, ‘목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하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하다’ 등 인생 전체를 감사로 풀어냈다.



「한경직목사설교전집」 1~18권 중 주제 관련 설교

시대의 재난 속에서 목사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이 될 것이다.

※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중 주제 관련 설교 응모자는 관련 설교 도서관에서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http://library.revhan.net/#>) 또는 영락교회 홈페이지(<http://www.youngnak.net/>)에서 확인

※ 문의 :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02-2280-0293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2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공모주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응모기간 일반부문 2022. 9. 6(화)~9. 30(금)

아티클부문 2022.9. 6.(화)~10.16(주일)

소주제

1. 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2.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역할
3. 빛진 자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실천

참가대상 청소년, 대학·청년, 장년

응모부문

독후감, 수기, 시:

A4 2~3매 내외, 글자 폰트 12, 줄 간격 160%

아티클(Article): A4 10매 이내, 글자 폰트 12, 줄 간격 160%

회화, 포스터, 웹툰: JPG 또는 PDF 파일 (수상자는 원본 제출)

UCC, 메타버스: 확장자 avi, wmv, mp4 등

영상(1280*720픽셀 이상, 3분 이내, 500MB 미만)

자유형식

응모방법 전자우편 (clibmi@naver.com)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 - 접수 시, 파일명은 '성명_제목'으로 제출, 작품 표지에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 문의 02)2280-0293

선정도서

일반부문

- 청소년부(중·고등학생)
 - ① 「시간을 잇는 아이」 정명섭, 박지선, 책담. 2021
 - ②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공우석, 반니. 2018
- 공동(중·고등학생/대학생·청년/장년)
 - ① 「먹다·들다·걷다」 이여령, 두란노. 2022
 - ② 「그린 엑소더스」 이진형, 삼원사. 2020
- 일반부(대학생·청년/장년)
 - ① 「모호한 삶 앞에서」 김기석, 비아토르. 2020
 - ②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 리치 빌로다스. IMP. 2022
 - ③ 「어둠 속의 촛불들」 로완 윌리엄스, 비아. 2021

아티클 부문(중·고등학생/대학생·청년/장년)

- ①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김수진, 흥성사. 2010
- ② 「나의 감사」 한경직, 두란노. 2010
- ③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중 주제(신앙, 환경, 사랑 실천) 관련 설교

수상자 발표 11월 6일(주일)

시상식 11월 13일(주일) 영락교회 분당

시상내역

• 일반 부문

구분	상금 및 상품	청소년부(중·고등학생)	대학·청년부	장년부
대상	아이패드	1명	1명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15만원 1명	30만원 1명	30만원 1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10만원 2명	20만원 2명	20만원 2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2명	10만원 2명	10만원 2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	-

• 아티클 부문

구분	상금 및 상품	청소년부(중·고등학생)	대학·청년부	장년부
대상	아이패드	1명	1명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30만원 1명	50만원 1명	50만원 1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40만원 2명	40만원 2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10만원 2명	30만원 2명	30만원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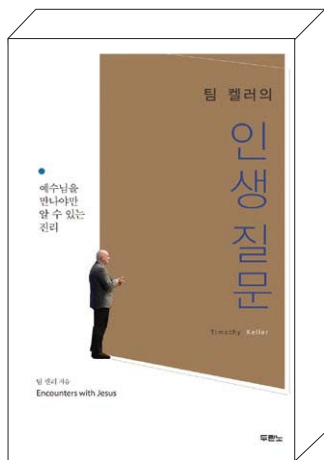
※ 청소년부(중·고등학생)

- 대상은 전체 응모자 가운데 1명, 최우수상~참가상은 각 학교별로 수상자 선정
- 아티클 부문은 전체 응모자 가운데 수상자 선정(학교별 시상 아님)

※ 수상작 편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수상작 전시 11월 13일(주일)~11월 26일(토)

예수를 만나야만 알수 있는 진리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팀 켈러 지음 / 두란노서원 / 2019년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작든 큰 변화하고, 변할 수밖에 없으며, 또 변화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곁에 찾아온 변화는 삶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질문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겨난 질문 중 쉽게 답할 수 없거나 아예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차지합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의문 곧 삶의

의미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으며,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여러 난관에 부딪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많은 질문의 ‘답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셨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나dana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고 왜 깨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득권에 속한 자나 소외된 자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함께 아파하시며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담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답, 곧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는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 가라.”(『인생 질문』 221쪽)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질문과 더 깊고 넓게 알고 싶은 신앙의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인생 질문』을 통해 명쾌하고도 올바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남**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에덴

〈십장생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고, 단순화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소재이다. 십장생 관련 중국과 일본의 문헌 어디에도 ‘십장생’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고려 시대부터 회화의 주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한국의 유전자를 가장 잘 품은 그림이 아닐까 싶다. 집 앞 인왕산을 오르내리는 길에서 만나는 산과 소나무, 바위가 너무 좋다. 이러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십장생으로 연결되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들인 십장생은 그 평범을 넘어 우리의 염원을 통해 영속성으로

승화한다. 유한한 삶을 살기에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은, 자신이 믿는 초월적 존재 앞에



갈망을 표출하곤 하는데, 십장생도가 그렇다고 본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과도 매우 닮아있다. 내가 작업하는 십장생은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현대적 이미지로, 보는 이가 호기심과 영생이라는 흥미로운 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남**

김근정 성도 _ 종로·성북교구

초대합니다

2022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대면)

토요반 : 2022.09.03~2022.12.03 오후2시~5시

화요반 : 2022.09.10.~2022.12.06 오전10:00~12시

훈련방법 : 대면

훈련장소 : 봉사관(토요반), 50주년기념관4층(화요반)

신청방법 :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광고QR, 전도부사무실 (50주년기념관 6층 주일오전), 광장 모집부스

신청기한 : 2022. 8. 26. (금)

문의 : 토요반(010-7492-0624) 화요반(010-3354-3835)

※ 코로나방역시 또는 대면훈련 불가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음

2022년 구역장 대회 -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4일(금) 09시 30부터 3시간여 동안 목양부(부장 지동춘 장로) 주관으로 제2회 구역장 대회가 열렸다. 이번 구역장 대회는 베다니홀에서 18교구 120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인 가운데 허요한 목사(안산제일교회)의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고, 참석한 구역장 모두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며 비장한 각오를 갖게 했다.

이어 구역장들의 임명장 수여식 및 김운성 목사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역과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구역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격려사를 끝으로 1부를 마친 후, 잠시 교역자와 구역장들이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이어 2부를 시작하며 최윤

미 권사(고양·파주교구)와 황정숙 권사(용인·화성교구)의 구역장 사례발표가 있는 후, 웃음과 감동을 안겨 준 안재우 대표(북화술사)의 복화술 문화공연을 끝으로 마침기도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새가족부, 3년만에 새가족환영회 만찬 가져

새가족부(부장 김명옥 장로)는 지난 6월 26일 주일 본당에서 찬양예배 시 새가족환영회를 개최하여 새가족수료식과 새가족 간증을 듣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군선교 50주년 회년대회를 참석한 가운데 새가족을 향한 축하 영상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한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하며 교회가 마음의 고향이 되고 주님께서 내리는 큰 은혜가 마음과 가정, 삶에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새가족으로 접수를 하면 5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교구 목사와 면담을 거쳐 등록 교인이 되는데 이날 환영회에 95명이 동반가족 70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되었던 새가족 초청 만찬을 제2식당에서 열어 김형찬 목사의 사회로 호산나찬양대 중찬단



의 특송과 함께 참석자들은 양육위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잔치 분위기로 만찬을 나누었다. 새가족부는 이날 만찬 후에 동반한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는 순서도 가졌다.

취재 김명옥 선임기자 사진 박상수 안수집사

중등부 일일카페 열어



지난 7월 10일 주일에 기념관 4층에서 만남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일일카페'가 중등부(부장 김지언 장로) 주관으로 열렸다.

일일카페 행사는 중등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티켓 판매 등 행사를 준비하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열정과 교사 간의 단합으로 수련회와 비전트립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하나 된 마음을 넘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음료와 다과를 통해 모인 후원금과 판매 수익은 7월과 8월에 있을 중등부의 여름수련회와 국내 비전트립의 발전 기금과 학생들의 참여를 돕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온 교회가 중등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 기도하며 이번 여름수련회(7.29~31 THINGS OF HEAVEN)와 비전트립(8.10~13 THE ROAD)가운데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공 중등부

선교부, 영락미술인선교회 속초더함교회 농아인과 미술 활동 가져

지난 6월 29일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산하 문화선교 문화기획팀의 영락미술인선교회는 회원 12명이 농아인 교인들이 주로 모이는 속초더함교회(담임 최만석 목사)를 방문하여 미술활동을 지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전 7시 교회를 출발하여 10시 경 속초에 도착한 회원들은 수화로 드리는 수요예배에 참석한 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연합작품 만들기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교회의 전면 사진을 25개의 조각으로 각자 나누어 그리도록 돕고, 다시 모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드는 협동작품이었다. 아크릴화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연세가 많은 농아인 성도들 14명이 참가하여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함께 만들어지는 작품을 통해 성도들은

코로나로 침체했던 마음에 위로와 활기를 찾으며 믿음의 공동체로써 참여회원들과도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만든 연합그림은 액자로 만들어 속초 더함교회 예배실에 설치되었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베들레헴찬양대 창립 40주년 감사음악예배

- 故 박영근 장로 찬양곡집 출판기념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지난 7월 10일 주일 오후 5시 저녁 찬양예배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베들레헴찬양대 기념음악회로 드러졌다. 이날 음악회는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과 함께 1982년 교인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5부 예배 신설과 함께 베들레헴성가대를 창단, 그 후 31년간 지휘를 맡아 섬겼던 고 박영근 장로를 추모하며 직접 작곡한 곡으로 전곡 연주했다. 이날 연주에는 박영근 장로 지휘 당시 솔리스트로 함께 활동했던 이정아(sop) 이지영(sop), 김미경(alto), 이창영(bass) 등이 함께 연주한 데 이어 흠키밍 데이를 겸한 기존 은퇴 대원들이 대거 참여 함께 연주했다. 이어 박영근 장로 지휘 당시 살아 생전 작곡했던 악보를 일부 정리해 찬양곡집으로 출간(합창, 솔로, 반주집 출간) 출판기념회도 함께 가졌다. 이날 흠



키밍 데이를 겸한 출판기념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기존 은퇴 대원들을 비롯 교회음악협회 관련 인사와 제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박영근 장로를 추모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따스하고 감동적인 모임이 되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영근 장로가 직접 붓글씨로 쓴 <평화의 기도>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전쟁으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 가정 위로



김운성 위임목사는 지난 6월 24일(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 때문에 국내로 철수한 우리 교단 소속 우크라이나 파송 선교사 다섯 가정(10명)

을 초청하여 오찬을 겸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위임목사는 선교사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기도로 위로, 격려했다. 선교사들은 영락교회와 위임목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속히 전쟁이 끝나 선교지로 복귀하여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총회세계선교부 홍경환 목사, 양석진 목사, 영락교회박성은 목사, 당회서기 김순미 장로, 선교부장 심재수 장로 등이 참석했다.

제공 선교부

군선교연합회, 연합사역 50주년 기념 희년대회 유공자 표창

지난 6월 26일 명성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연합사역 희년대회를 열었다.

희년대회는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라는 주제로 군선교연합사역 5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재도약과 미래대부흥을 다짐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진중세례, 군인교회 건축 등 군선교현장



- 교회 부문 유공자 표창 수상자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
- 개인 부문 유공자 표창 수상자
故한경직 목사, 故방인숙 전도사, 故최창근 장로,
이재규 은퇴장로, 김덕운 은퇴권사, 조의도 은퇴권사

을 지원하며 지역교회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군선교회는 교회부문 유공자로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를 개인부문 유공자로 故한경직 목사, 故방인숙 전도사, 故최창근 장로, 이재규 은퇴장로, 김덕운 은퇴권사, 조의도 은퇴권사 등 6명을 표창했다.

제공 선교부

서동희 은퇴권사 신작 ‘오병이어의 기적’ 전시

서동희 은퇴권사(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도자공예전공 명예교수)가 7월 6일(수)~11일(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시실(인사동)에서 열린 제24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에 신작 <오병이어의 기적>의 작품을 선보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작업은 도자기 제작기법의 하나인 핀칭(pinching)기법을 활용하여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빵, 금빛으로 빛나는 주님의 무한한 축복을 표현했다. 서 권사는 성경의 이야기로 영적인 예술을 펼치며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오병이어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함께하셔서 빈들로

주님을 따랐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무리를 배부르게 베푸신 기적이다. 어려운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사 우리의 메마른 심령까지도 친히 생명의 떡으로 위로 하시며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주의 백성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주선애 은퇴권사, 영락교회·장신대 공동주관 장례예식 -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라는 고백이 하늘에

지난 6월 19일 향년 98세로 별세한 주선애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924~2022)의 장례예식이 22일 오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거행됐다. 영락교회 권사로,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참된 후학 양성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주선애 교수 장례식은 영락교회·장로회신학대가 공동 주관했다. 장례예식은 장신대 총장 김운용 목사가 집례하여 김운성 목사가 대표기도, 김순미 장로가 성경봉독, 류영모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꿈꾸는 소녀로 살았다’(사도행전 2:17)는 제목으로 “선생님. 편히 쉬세요. 이제는 우리가 뒤를 잇겠습니다”라고 설교했다.

이후 일생 후학을 양성하고 가르친 대로 살았던 주 교수를 그리워하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최효녀 장로(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으며 송정미 교수(송실대 음악원)가 조가를 불렀다. 생전 주 교수는 송 교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가로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민음의 장수,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예배



지난 7월 9일 오전 7시 반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예배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드려졌다.

3대째 우리 교회 교인인 백선엽 집사의 추모예배는 ROTC

기독교장연합회(이하 R기연) 주최로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와 ROTC 중앙회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1부 예배와 2부 추모식으로 나누어 드려졌다.

1부 한영상 은퇴장로(R기연 5대 회장)가 예배 인도를 맡아 이정호 은퇴장로(R기연 3대 회장)의 기도와 “자기 곳에서 할 일(창세기 18:32~33)”이라는 제목으로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김원하 목사(손양원 목사 사위)의 추모 연주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모 영상과 조병후 R기연 현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추모예배에 이어 백선엽 장군의 삶을 담은 『하늘의 별이 되어』(백선엽장군 기념사업회)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김재훈 은퇴장로 향년 102세로 하나님의 품에

김재훈 은퇴장로가 7월 3일(주일)에 향년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1920년 평북 신의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평생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삶의 본을 보이셨다. 1973년부터 국제기드온협회와 군복음화 특별위원으로 코로나19 전 99세까지도 기드온 사역에 참여하시며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셨다. 교회의 봉사는 서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남선교회 부회장, 1975년 집사 안수 후, 영락유치원 감사, 재정부 차장, 설악산수양관 운영위원, 안수집사회 회장을 거쳐 1982년 제17기 시무장로로 장립됐다. 1990년 12월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호산나 찬양대 대장, 청년부 부장, 교회40주년기념 체육대회위원장, 서무부 부장, 영락농아인교회 운영위원, 영락학원 이사, 심방부 부장, 영락여자신학원 운영위원, 예장총회 장로 총대, 아동교육부 부장, 구역장 31년(구역장 봉사 30년 표창)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가족의 뜻에 따라 7월 9일(토)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로 마치고 영락공원묘원으로 이동하여 김형찬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을 드리므로 안장했다. 유족으로 4남 1녀를 두었다.

임정산 은퇴장로 7월 5일 별세, 향년 89세

1933년 평남 용강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6·25때 서울로 피난을 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청장, 재무부장관 표창, 세무대인상과 대한민국 녹조근정 훈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또한 30년 전 <참빛육영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장학생을 돕는 헌신도 하셨다. 우리 교회에서는 1972년 재정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영락보린원 이사, 감사위원, 예산위원, 청년1부 부감 부장을 봉사하며 1988년 집사 안수, 사회복지재단 감사, 이사, 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 당회 특위 행·재정 전문위원, 영락학원 감사·이사, 제직회 서기, 50주년기념사업 재정분과 서기로 1993년 12월 제 25기 시무장으로 장립되어 2003년까지 당회원으로 당회 기획위원 및 서기, (재)추양선교재단 감사, 이철신 목사 청빙위 서기, (재)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감사, 재정부 부장을 역임하셨다.



고인의 유해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대에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 장례예식은 7월 7일(목)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로 드러졌다. 유족으로 2남(요한, 요업)과 후손을 두었다.

김재훈 장로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나 (요한복음 11:25, 26)

김재훈 장로님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주안에서 믿음으로 사셨으며, 금구복 권사님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5남매를 두었고 주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 자녀들 모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여러 부서와 기관을 두루 맡아 열심히 봉사하시어 교인들이 본받을 귀감이 되셨습니다. 주일마다 은퇴장로실의 앞자리에 앉아계신 김 장로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은 말수가 적고 항상 웃는 얼굴로 주위를 온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은퇴장로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장수하셔서 올해는 넘기실 줄 알았는데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시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그 아들 셋은 910세,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 아들 게난은 910세, 그 아들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 아담의 족보의 수명에 비하면 김재훈 장로님의 수명은 이에 한참 미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육신의 옷을 100여 년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랑했나를 보여주는 증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재훈 장로님은 100년 동안 나라 변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시며 험란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본래 꽃길이지 아니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갖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장수하고 수고하는 중에 육신이 노쇠하면, 새의 깃털도 짐이 되는 때가 이릅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있지 않게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도록 하십니다.

김재훈 장로님은 우리 곁을 떠나 생전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손수 예비하신 천국에서 안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김재훈 장로님을 이 땅에서는 다시 뵈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수하신 김재훈 장로님의 생전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고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복된 안식을 얻었고,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소망하며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가족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김재훈 장로님께 삼가 조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9일
김규홍 은퇴장로 올림

임정산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신 장로님, 장로님과의 만남은 근 50년이 되어가네요. 6·25전쟁으로 평북 용강에서 월남하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캄캄한 세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장로님은 항상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자상하셨으며 속이 깊은 분이셨지요. 수줍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늘 간직한 맑은 품성으로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면 몇 갑절로 갚아야 마는 천성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한평생 새벽기도 드린 분입니다. 맑은 일마다 시작하면 끝이 분명했고 마무리가 확실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며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내일을 무릎으로 준비한 참 지혜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목회와 목회 행정이 시대에 부합하도록 교적 관리 전산실을 만들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교회 예산과 재정 관리를 전산화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및 친교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회 재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한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늘 숨어서 선교사님들이나 군인교회,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특히 부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는 넉넉한 큰손이셨습니다. 월급봉투째 큰 후원으로 지원하면서도 적은 현금이라 부끄러워하시며 점연쩍어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본인의 피난 시절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이웃을 돌보는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장로님이 돌보시는 분 중, 먼 곳의 지방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보면 표정이 마치 부모 형제와의 상봉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만 해도 충분합니다, 부모 형제인들 어떻게 이렇게 평생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하며 고마워했지요.

교회가 어려워 현금이 예산보다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교회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본인은 내년에 드릴 현금을 올해 미리 드린다고 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물론 다음 해가 되면 또 내년 현금을 미리 당겨서 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자 하시며 친근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 장로님은 평소에 참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장로님의 삶과 섬김은 항상 교회가 최우선이며 생활은 언제나 소박하고 간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장로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며 자족하신 어른이셨습니다.

교회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얘기도 빠뜨릴 수 없네요.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1차 현금을 작성할 때 약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자원하여 헌금했지만, 작성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2차 현금을 할 때였지요. 당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교회 중직자들은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2차 헌금에 정성껏 참여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랍게도 장로님은 당시 거주하던 우성아파트를 매각한 후 도곡동에 있는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누구보다도 많은 2차 현금을 드렸지요.

임 장로님! 장로님과 영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생활한 지난 50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은혜요 축복이었습시다. 귀한 만남이었습시다. 장로님은 주님의 모습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실로 우리가 닳고 싶은 넉넉한 큰형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숙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평전>을 다 이루고 그 <평전>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임정산 장로님, 대를 이어 큰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요 모든 성도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님, 우리도 장로님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장로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로님의 빈자리 많이 허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친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 쓰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소서!

임정산 장로님,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2022. 7. 7.

남은 자를 대표해서 늘 사랑받은
우무정이 조사를 드립니다

임정산 장로님을 보내드리며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글을 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저는 우리가 이제 80세를 넘겼으니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예”하고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장로님은 1933년 평안남도 용강군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피란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세무공무원이었던 23년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세무직으로서의 가장 큰 명예인 세무대인상도 받으셨습니다.

평안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1969년 12월에 영락교회에 오셔서 교회 행정장정, 규정, 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무척 존경하던 장로님은 설악산에 추양하우스를 세울 때 한 목사님과 장치혁 안수집사의 부탁을 받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서장직을 명예퇴직한 후 건축하기부터 건물완공까지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부인 최영실 권사님과 함께 1990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번에 걸쳐 기금을 출연하여 참빛육영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200여 명의 학생에게 전 학년 학비를 원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동안 누계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대학원생에게 주었으며 교역자 자녀, 탈북자유인이 주 대상자였습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드시며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통일 이후 고향마을에 교회를 건축할 목적의 건축비를 북한선교부에 현금하셨고 또 2011년에는 장로님이 초·중학교 학생 때 다니던 평양 신암교회의 재건에 사용할 건축비를 현금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많은 일을 맡기셔서 지난 이삼십 년 대부분을 장로님과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장로님과 같이 일하며 느낀 것은 장로님께 맡겨진 일은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장로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던 한경직 목사평전 제작을 작년에 시작해 놓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말만 하고 시작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일은 우리가 잘 진행할 테니 안심하시고 가십시오.

이제 하늘나라에서 한경직 목사님, 최창근 장로님, 그리고 부모님과 권사님도 만나셨겠네요. 우리도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뒤쫓아가서 장로님 반갑게 만나 뵈겠습니다.

한진유 은퇴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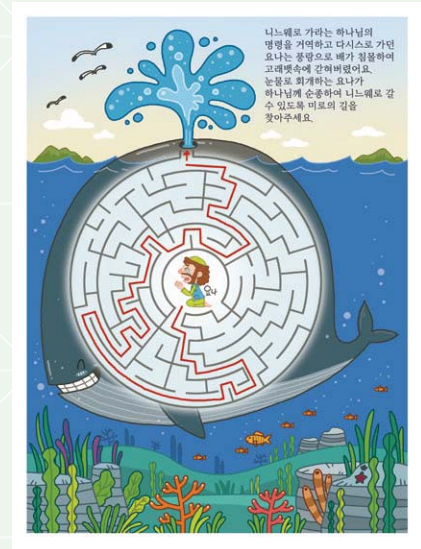
8월 목회력

1일(월)~3일(수)	산상기도회 2차
4일(목)~6일(토)	한마음한가족 가족수련회
7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광복주일
14일(주일)~19일(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16일(화)~20일(토)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20일(토)	상담부 공개강좌(하반기)
21일(주일)	심방준비회, 새가족환영회
28일(주일)	사회봉사의 날, 사회봉사주일

※ 8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2022년 8월호 통권 582호

발행 2022. 8.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그물 속 물고기 숫자 세어보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는 몇마리인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눅 5장 5절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번호대로 선을 이어 그물을 그리고
그 안에 잡힌 고기가
몇마리인지 알려주세요.



영락화랑

에덴

(Story of Ten Eden Series 2)



김근정, Acrylic on dyed silk, 117×91cm, 2022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9)